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김진경

2011年 2月

#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 惠 娟

金 眞 慶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年 2月

김진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2월

<국문초록>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연구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김진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김혜연

본 연구는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 자아존중감, 부모, 교사, 친구에게 받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미래기대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추후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미래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와 가정 교과에서의 청소년 미래기대를 강조한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중·고등학교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미래기대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800명의 자료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과 무응답 설문지를 제외하였으며, 자료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611명 이었다.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ANOVA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미래기대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미래 성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꿈과 목표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청소년의 특징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은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 교외리더경험, 어머니 교육수준, 생활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특징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지지 경우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 가족유형,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이었으며, 교사의 지지는 성별, 학년,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 봉사활동경험,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자아존중감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는 성별, 학년, 학교성적, 개인용돈, 교내리더경험, 교외리더경험, 봉사활동경험, 자아존중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과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미래 삶을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여 미래성공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은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 봉사활동경험,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생활수준,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경우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부모 스스로 자녀들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역할모델링으로 작용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위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형1에서는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 생활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성적은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며 학교성적이 좋은 경우 학교내에서 리더를 경험할 확률 또한 높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모형2에서는 생활수준과 자아존중감이 모형3에서는 생활수준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변인인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활수준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아존중감과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평가가 성공적인 미래 기대를 형성하는데 직접적 연관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미래 삶에 대해 긍정적이며 자신감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미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계획을 세우며 준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기호에 적합한 다양한 교과내용 편성을 가정과 교과를 중심으로 확대·강화함은 물론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 및 미래기대를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회적 지지체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표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문제 -----	4
II. 이론적 배경 -----	5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	6
1) 자아존중감의 개념 및 중요성 -----	6
2) 선행연구의 고찰 -----	9
2.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	12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및 중요성 -----	12
2) 사회적 지지의 유형 -----	14
3) 선행연구의 고찰 -----	18
3. 청소년의 미래기대 -----	19
1) 미래기대의 개념 -----	19
2) 미래기대의 중요성 -----	20
3) 미래기대의 영역 -----	21
4.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22
1) 자아존중감과 미래기대에 대한 선행연구 -----	23
2) 사회적 지지와 미래기대에 대한 선행연구 -----	24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	26
1. 연구모델 -----	26
2. 척도의 구성 -----	27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29
4. 분석방법 -----	29

IV. 연구결과 및 해석 -----	3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1
2.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및 관련 변인 -----	34
3.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및 관련 변인 -----	36
4. 조사대상자의 미래기대 및 관련 변인 -----	40
5. 조사대상자의 미래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43
V. 결론 및 제언 -----	45
참고문헌 -----	50
Abstract -----	56
부록 -----	60



## 표 목 차

<표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30
<표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3
<표3> 자아존중감 실태	31
<표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인식 차이	34
<표5> 사회적 지지 실태	37
<표6>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인식 차이	39
<표7>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 실태	40
<표8>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 차이	42
<표9>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제변수들의 영향력	44

## 그 림 목 차

<그림1> 연구모형	27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은 아동기의 끝과 성인기의 시작을 연결하는 과도기적인 시기로서 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제반특성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해가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한상철, 1998). 청소년기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단계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청소년기에는 미래 자신의 성인기 발달과업을 선택하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시기로서,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부터 성인기 발달과업에 대해 자주 생각하며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 긍정적·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면, 건강한 청소년 시기를 보낼 것이며 보다 성공적인 미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미래기대가 중요한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청소년기는 미래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차별화 및 확장되는 시기로서 미래 계획이 점점 구체적이고, 미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기는 인생의 전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하는 전환점의 시기이기 때문이다(유지선, 2007). 또한 청소년기에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미래기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미래기대의 중요성을 인식한 외국의 경우는 이미 그 분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들은 혼돈스러운 환경이나 부정적이고 취약한 환경에서 이를 피하고 미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고, 이는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미래기대는 학업성적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높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준다. 그리고 청소년기 성장과정에서 미래기대를 갖고 성장하는

청소년은 어렵고 혼돈스러운 상황에서도 인내심과 체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기 삶의 주체로서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청소년기의 미래기대의 중요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전국 1,500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갈등, 진로 결정의 어려움, 진로 정보 부족 등과 같은 미래의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45.7%)이 학업과 관련된 고민(28.7%)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2003). 또한 김혜수(2002)가 부산광역시 고등학생 2,4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주된 고민사항에 대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진로, 성적, 친구, 성격 순으로 나타나 미래와 관련된 진로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청소년기의 미래에 대한 성공 기대와 진로선택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나타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미래기대, 진로문제 등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체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자기평가, 자기실현 및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미래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Seginer, Vermulst, & Shoyer, 2004). 호주와 핀란드 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기대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은 미래의 여러 영역 중 학업 영역, 직업과 진로영역,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사건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Seginer, 1988).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성취감과 자신감이 높고,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며, 목적감과 미래에 대한 이상으로 동기화되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위의 자료들을 잘 이용한다고 하였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성공에 대한 성취동기가 높고, 더욱 끈기 있고 꾸준히 공부하여 학업성취도가 높고 보다 도전적인 과제나 문제를 추구한다고 한다(홍성흔·도현심, 2002). 그러나 청소년기는 때때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혼돈과 방황을 거듭하기도 한다. 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현재 자신의 정체성

을 확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자아존중감을 확립하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등 미래기대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앞으로의 개인의 삶이 좌우될 정도로 매우 신중하고도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자아존중감을 확립하고 성인기 발달과업에 대해 자주 생각하며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청소년의 미래기대에는 개인의 내면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애정을 기반으로 결합한 공동운명체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가족(이영재, 2008)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동안 함께 생활하는 친구와 선생님이 있는 학교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며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더 나아가 성공적인 미래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은 물론 부모와 교사, 친구 등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영향력은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장하는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수연(2006)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성취를 인정하는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며, 성취동기가 높은 아동은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강한 의욕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로부터 벌을 받고 위협을 받으며, 순종을 강요당하고 자란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독립성을 상실하는 반면, 학습능력도 떨어진다고 하였다.

결국 청소년기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청소년의 성공적인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인식하고 계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대부분이며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체계와 관련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체계들이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대하고 있는가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예측하

는 것은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진로를 선택하고, 미래를 계획하여 준비하는 기간인 청소년 시기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 교사, 친구에게 받는 사회적 지지와 미래기대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중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무엇이 더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추후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미래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와 가정과 교과에서의 청소년 미래기대를 강조한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미래 자기 삶에 대해 주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부모, 교사, 친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과도기적 청소년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인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제주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미래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이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특징에 따라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에 따라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의 특징들은 미래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Ⅱ.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잘 받아들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미래기대, 학교생활태도 등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청소년기의 사회 환경적 요인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고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학교, 가정, 건강, 사회, 개인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계획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경우, 미래에 대해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의 취약한 환경을 보다 잘 다루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거나 미리 상황을 그려봄으로써 심리사회적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박현선, 1998 재인용).

이상의 문헌검토를 통해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변인들은 자아존중감과 미래기대, 학교생활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미래기대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아존중감의 개념 및 중요성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어떤 사람의 자기가치감(self-worth)이다. 자아존중감이 생기려면 자아개념과 자기이상(self-ideals)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 작업을 시작하는데, 자신을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목표와 이상적 가치로 통합하게 된다. 개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지각하는지, 되고 싶은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를 통합하기 시작할 때 내적인 갈등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 갈등 없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의 자기 지각과 타인과의 관계는 마침내 자기 수용과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타인과의 관계는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관계 혹은 원하는 관계와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 부적응이 생긴다(정영숙 외, 2001)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평소에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뜻하며, 이것은 자신을 능력 있고 의미 있으며 성공적으로 또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주요 기준을 네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중요도(significance)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하여 사랑을 받으며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뜻한다. 둘째, 능력(ability)으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취의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력의 정도를 말한다. 셋째, 미덕(virtue)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규범을 달성한 정도를 뜻한다. 넷째, 영향력(power)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Mussen 외(1984)는 자아존중감이 인간행동의 중요한 기본 동기이고 정신건강 및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Rosenberg(1965)는 자신을 회의적이며 무가치한 인물로 보는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보다 4배 이상이나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Bachman & O'Malley(1977)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부정, 자아불만족, 자기 경멸에 이르게 됨으로써 불안한 심리상태와 소극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게 되어 적응에 장애를 갖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 한 개인의 정서와 행동, 인지 과정에 관계하며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문제나 정서적 장애의 일부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안선숙, 2010 재인용).

Rosenberg(1979)는 자아존중감의 진정한 의미란 자기 자신을 가치로운 한 인간으로 여기는 것으로 비록 개인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거나 더 잘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보다 좋은 점 또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면서 근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는 자신을 좋은 성격자

로 인식하여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한다. 즉,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이 있고, 이들은 부정적 자아상으로 인해 열등감을 호소하거나 이러한 열등감을 위장하기 위해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사춘기로 인하여 생기는 극적인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로 오는 자아상의 한층 강화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또 하나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이 자아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자기평가는 청소년들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타인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타인은 일반적으로 친구집단이나 동료 급우들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을 부모나 교사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Rosenberg(1965)는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그리고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인다고 했다. 그들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원했던 성공이나 더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사회적 고립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청소년들은 자기 표현에 대한 능력, 자기 확신, 인내, 잠재적인 지도력, 재주, 지능과 숙련도,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사회적인 기술, 실용적 지식의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영향을 미친다(강영미, 2000).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으며, 능력 있는 존재로 보는 견해로서 개인의 심리적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다양한 정신건강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기 패배적인 행동이 수반되며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난다.

Kalplan(1975)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체계적인 이론을



통해 제시했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소속집단(또래집단, 가정, 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느끼게 되며, 소속집단의 규범에 동조하지 않으려고 함과 동시에 반 규범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계속 좌절되고 있음을 느끼게 됨으로써 마침내는 규범에 대한 동조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일탈적인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이들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되며, 청소년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 태도, 지각에 관해 자기의가치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는 종합적인 정서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데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감과 인내력이 많으며,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능력이 높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결론은 심리적인 측면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정서는 자아존중감을 조직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자신이 얼마나 가치있고, 능력있는 인간인가 하는데 대한 스스로와 타인의 평가를 얼마나 수용하며 존경하느냐 하는 정도로 정의하겠다.

## 2) 선행연구의 고찰

자아존중감은 평가적 차원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지 또는 여러 요소로 이루어져서 수행하는 과제나 당면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대체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 상태나 인지적인 추상적 개념으로 보는 입장으로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자아존중감이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보다 복잡한 인지적 요인과 미분화된 정서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김춘례, 1992)

Rosenberg(1979)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

보다 불안이 강하며, 대인 관계가 좋지 않고 고립되어 있다. 또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리더로 일할 수가 없으며,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실패를 두려워하여 모험을 하는 일이 적고 타인에 대한 필요 없는 신경과 의존심이 많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편이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위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소속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여 성취감이 높으며 자신감 있고,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알며, 미래에 대한 이상으로 동기화 되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위의 자료들을 잘 이용한다고 한다.

점점 후자의 입장이 대두되고 있어 자아존중감의 구성 요인을 밝히는 데 크게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친구집단과의 관계 요인, 학교 요인, 지역사회 요인 등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태인, 1995). 이를테면 부모가 관심, 참여, 친밀감, 애정 또는 온정 등을 자녀에게 나타낼 경우 대체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구속적, 거부적 행동, 무관심, 비난, 억압, 통제와 위협 등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박영애 외, 2003).

성에 따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 관한 보고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 능력, 사회적 능력, 전반적 자아 가치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고, 신체적 능력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5~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본 종단적 연구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능력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국내 연구의 결과에서도 김치영과 이진화는 남아가 신체적 역량에서 여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김미란, 2002 재인용).

유치원과 초등학교 3,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발달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정순지(1993)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4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진화(1993)의 연구에서도 학업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 전반적 자아 가치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 발달과 경험의 축적 및 사회화 과정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데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한 시기로 아동기, 성인기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혼란스럽고 변화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최희영(2005)의 연구에서 보면 Simmons & Rosenberg(1973)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상을 연구한 결과, 청소년 초기의 학생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우울하고, 자의식이 강하며, 자존감이 낮고, 부모, 교사, 그리고 동성의 친구가 자신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각하였음을 보고하였다.

Harter의 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한 Nettleman의 종단적 연구에서 사회적 수용에서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6학년이 7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Wigfield등은 자신이 개발한 수학과 영어, 운동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능력 척도와 Harter의 전반적 자아가치 척도를 사용하여 6학년을 대상으로 2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4차례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았는데, 6학년에서 7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사회적 능력과 전반적 자아가치에서 감소를 보였다(김미란, 2002 재인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정홍(2001)과 노선(2003)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반면 이혜숙(1998)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김옥숙(2001)과 김은주(2002)는 남녀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옥숙(2001)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 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진용(1990)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김옥숙(2001)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Kalplan(1975)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더 높은 학업성취를 하는 경향이 있고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고 하였다.

Coopersmith(1967)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자녀의 부모는 자녀를 수용하고, 애정을 표현하며, 자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고, 자녀가 이해해야 할 명확한 행동 기준을 설정하여 지키게 하며, 설정된 한계 내에서 자녀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하고, 가족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며,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유능하고 조직적인 도움을 주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김희화(1998)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환경적인 변인으로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교우관계 친밀도, 학업 성적 등이 나타났다.

## 2.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및 중요성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시작은 Cobb(1976)가 제시한 고전적인 정의부터라고 할 수 있다.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를 사랑받는 느낌, 가치 있거나 존중 받는 느낌,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느낌의 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여러 하위유형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김혜경, 1999 재인용).

김미숙(1995)의 연구에서 Maslow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열거하고 욕구의 위계별 조지고가 충족의 진행순서를 설명하면서 욕구계층의 셋째 단계에 사회적 욕구를 두고 있다.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사회적 지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돈규(2001)는 사회적 지지에는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가 있는데 정서적인 측면에서 타인으로부터 지원되는 정서적 지지, 정보 및 지식을 포함하는 인지적 지지, 개인 및 개인행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평가적 지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지,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물질적 지지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Demaray & Malecki(2002)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다섯 개의 구성요소

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구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방향(direction), 특성(disposition), 기술/평가(description/evaluation), 내용(content), 그리고 네트워크(network)가 포함되어 있다. 방향은 사회적 지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느냐 아니면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특성은 이용 가능성과 실용성을 의미하고 있고, 묘사/평가는 개인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평가이다. 사회적 지지의 내용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그리고 평가적인 것이다. 정서적 지지는 신뢰, 사랑, 감정이입과 같은 것이고, 도구적 지지는 돈이나 시간과 같은 물질적인 것이고, 정보적 지지는 특정 영역에 대한 정보나 충고, 그리고 평가적 지지는 개인에 대한 평가적 피드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는 개인의 지지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나 제공자들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종합·분석한 후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일반적 지지나 특별한 지지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라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은 진로 및 미래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거나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예, 부모, 교사 등)의 기대나 요구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을 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개인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요인이 직업선택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김봉환, 2001 재인용)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중요한 타인들이 청소년의 교육이나 직업적 포부 및 직업 선택 등 미래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황미정, 2009 재인용)

청소년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 등의 제한된 환경 내에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적절한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성인보다도 제한된 지지제공자를 갖게 된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의 주요 제공원은 이들의 발달과정을 통해서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되는 부모·형제·친구·교사라 할 수 있다



## 2) 사회적 지지의 유형

### (1) 부모의 사회적 지지

부모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행동유형을 습득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다. 부모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혈연으로 맺어진 1차적 집단이며,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고 타인의 성격이나 행동에 적응하는 힘을 배우는 최초의 사회적 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환경이나 일반 사회환경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정원식 외, 2007).

이와 같이 부모는 가족 구성원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한 개인에게 출생으로부터 성숙에 이르는 청소년기까지 발달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확립, 더 나아가 미래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정, 사회, 학교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정환경은 다른 환경에 비해 보다 심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의 인적 요인인 부모 요인이 다른 환경에 있어서의 인적 요인보다 영향면에서 있어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간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오수현, 2010).

또한 부모는 가정안에서 사회의 문화를 전달하는 기능과 가족을 보호하는 기능, 사회성원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에 의한 변화들에 부모들이 어떻게 적응하는 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Dyk, 1990).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다양한 요인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 이후에도 중요하다. 가정의 분위기, 부모와의 관계, 훈육 방식 등은 대인관계와 학교에서의 성취, 미래의 직업 선택 등에서 영향을 미친다. 인지적 발달로 인해 부모의 절대적인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한 것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은 달라질 수 있다(정원식 외, 2007).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는 의사소통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으로 함께 주고 받는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은 사회화되고 부모의 자녀간의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는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발달의 방향을 결정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특히 교육적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구조변화로 가족구조의 변화, 가정의 기능 변화, 교육적 기능의 약화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정체감 형성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중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방법, 자녀에 대한 태도와 부모-자녀간의 인간관계 등은 특히 많이 연구 되고 있는 변인이다.

김미숙(199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다른 집단이나 조직보다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강한 유대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자아 존중감과 미래기대에 많은 영향을 주며 개인과 그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심리적 환경 변인들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 (2) 교사의 사회적 지지

오늘날 학교는 청소년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인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학교에서 교사와 친구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청소년의 인격형성 및 성장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친구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를 더 선호한다. 그렇지만 가족 관계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이나 진로문제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부모나 교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조유영, 2010).

또한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가정교육의 기능 약화 및 사회화 기능의 약화로 학교교육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의 사회화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사회화 기관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진은아(2007)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환경이란, “학교라는 울타리, 조직체 또는 사

회체제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 직원 등 학교 구성원과 이들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에 직접, 간접으로 일정한 힘, 자극, 영향 및 압력을 미치고 있는 세계”이며, 학교풍토 또는 학교 분위기라고도 일컬어진다. 청소년기는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라는 집단환경 속에서 보내며, 복잡한 인간 관계망에서 전개되는 상호작용 과정과 수많은 환경압력을 받으며 또 거기에 반응, 적응하는 가운데 겪는 경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미래기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때,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렇듯 학교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며 특히 교사는 지적 성숙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나 규율의 집행자 역할을 벗어나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동일시와 모델링(modeling)과정을 통해 부모 이상으로 그들의 인생의 진로를 바꿔놓기도 한다(신애현, 1998).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사회관 등을 습득하게 되므로, 교사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혜경(1999)은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교사의 지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지혜(1998)는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교사의 지지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다.

### (3) 친구의 사회적 지지

친구란 연령이 비슷하거나 성숙수준이 비슷하여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장, 발달해 감에 따라 부모와 가족의 품을 벗어나서 보다 넓은 사회적 접촉을 해 나간다. 그 중에서도 비슷한 연령의 친구 집단은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과 모범이 되고 또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인간의 사회 및 성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춘재, 1998).

또한 친구관계는 부모나 형제 등의 비자발적인 관계와는 달리 자발적인 상호의존관계라는 새로운 대인관계의 시초가 되며, 동시에 친구는 가족원들로부터 제공받



는 사회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 라고 할 수 있다.

탁은정(2010)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짐 에 따라 친구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아동은 자 기 친구 나이에 맞는 지능과 흥미를 발달시키고, 비슷한 문제와 감정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또한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 사회적 기술, 적응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학교 에서 가정배경이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각기 다른 문화를 흡수하여 평균화를 이루며 성장해 가고, 이들의 긍정적·부정적 친구 관계는 미래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정신건강, 행동문제와 관련된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는 단순히 놀이 친구를 필요로 하는 아동기와는 달리, 서로 깊은 내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동기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는 다(신애현, 1998). 따라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이 친구관계의 확장이라 볼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영향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장면에서 어른들로부터 받는 일방적인 지도·편달 및 사회적 영 향으로부터 벗어나, 비슷한 연령과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영향을 주 고 받으며 성장·발달해 간다. 친구는 청소년의 사고나 행동을 스스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준거집단이며, 자기와 전혀 다른 연령 단계의 인물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친구 에게 견주어 봄으로써 사회·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친구 관계는 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면서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친구관계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있어, 청소년기의 친 구 관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집단 동조압력이다. 집단 동조압력은 다른 사람의 압력 때문에 그들의 태도나 행동을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봉사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운동과 같은 집단의 바람직한 가치규범에 동조하게 함으로 써 사회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비어나 은어를 사용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집단의 바람직하지 못한 규준에 동조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기 후기로 접어들면서 정체감이 발

달하게 되면 동조행동은 감소하며,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동조행동을 하지 않는다(구본용 외, 2003).

청소년들은 친구를 통해 도덕적 판단과 가치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얻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시연하기도 한다. 성인들은 비행이나 일탈 행동을 습득한다고 친구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정보와 지지를 얻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 집단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지위, 인기, 인정 등을 제공하는 강력한 사회적 보상의 원천이며, 정체감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문경숙, 2007).

### 3) 선행연구의 고찰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나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 이것이 청소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고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발달에 있어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조아미·방희정, 2003).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능력지각이 높고,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능력,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신체적인 건강,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학습장애, 위협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아이의 삶에서 상처받기 쉬운 아이들에게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구자은, 2000; 재인용).

그러나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우울, 정서문제, 약물, 자살, 비행, 스트레스, 부적응, 공격성, 가출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해영, 2005 재인용).

### 3. 청소년의 미래기대

인간은 어떤 목표를 향한 내적인 욕구를 지니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앞으로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축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미래에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변인들로 인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1) 미래기대의 개념

기대(Expectation)란 어떤 특별한 강화가 특정한 상황속에서 자신에 대한 구체적 행동의 기능으로서 일어나는 개인이 가진 가능성으로 규정된다.

이영재(2008)의 연구에 따르면 기대를 주관적 가능성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는 진실된 혹은 객관적 가능성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기대수준은 개인이 어떤 일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장래의 성취수준이라 말하였다. 성취감과 실패감은 실제의 성취수준이 예상한 성취수준을 능가했거나 미달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 기대수준은 여러 가지 목표설정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취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미래기대란 때로 성취기대란 말로도 사용되며, 개인이 미래의 과제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 개념은 포부수준(aspiration level),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반면 자아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빨리 포기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사람들은 더욱 인내하게 되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도 높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들(박영신 외, 2002)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유지선(2007)은 미래기대를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도로 정의

하였으며, 미래를 예측하고 조명하기 위한 능력, 자신의 목표, 계획, 결정을 통해 미래를 통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자기 구조화된 의식적인 미래의 이미지로서 현재의 동기와 행동의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렇듯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사람은 걱정과 불안이 앞서 결국 주어진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그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점차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되어 실패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성공에 대한 긍정적 생각은 미래기대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의 정의를 바탕으로 미래기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미래기대란 청소년이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으로서, 현재 행동이 미래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현재의 동기와 행동의 표준이다

## 2) 미래기대의 중요성

혼돈스러운 환경이나 부정적이고 취약한 환경에서도 이를 피하기 위해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계획을 미리 세우거나 미리 상황을 그려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 즉 미래를 성공적으로 기대하고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있다.

조유영(2010)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더 다양한 역할에서 기능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에서 부과되는 요구들은 서로 양립하거나 갈등관계에 놓이는 것들이라 하였다. 이 요구들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둘 이상의 변수를 정신적으로 다루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청소년기에는 새로 부과되는 여러 가지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고 조정해야 하며, 더불어 성인 생활에 준비하기 위한 여러 과제에 집중한다. 즉 청소년기에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획하며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노력하느냐는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박현선(1998)은 미래기대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인 성장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혼돈스러운 환경이나 부정적이고 취약한 환경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움으로써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김자성(2001)에 의하면 보통 초등학교 3~4학년이 되면 자신의 진로 및 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미래 직업이나 삶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속성, 부모의 교육수준, 간접적인 직업경험, 부모의 경제적 지위, 자아개념, 내외 통제적 신념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기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미래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행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청소년기에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이 미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미래는 아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미래는 밝은 것이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긍정성은 청소년의 인생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것이다.

### 3) 미래기대의 영역

Trommsdorff 등(1979 재인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과 자아실현, 신체적 안녕감과 외모, 가족, 직업 등 4가지 영역에서, Poole & Cooney(1987)은 주로 직업과 결혼 영역에 대해 연구하였다. 점차 개인적 미래지향 영역과 공적 미래지향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개인적 미래지향 영역은 성격과 자아실현, 학업,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 등을 포함하였다. 반면 사회적 미래지향 영역은 모든 문화에서 직면한 주된 환경적인 문제, 전반적인 세계의 미래, 중요한 사회적 특성과 제도의 미래를 포함하였다. Seginer(1988)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미래지향 영역과 사회적 미래지향 영역에 기초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한 결과 8가지 영역으로 수정 및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학업,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 영역에서 청소년의 미래지향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유의한 결과를 타나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이러한 3가지 영역이 미래 수행해야할 중요한 발달과업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기초로 이러한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수준을 알아보았다.

#### 4.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

McCabe & Barnett(2000b)은 미래계획 연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래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특히 청소년의 성별(Poole & Cooney, 1987; Malmberg & Trempala, 1997; Seginer & Schlesinger, 1998; McCabe 등 2000a, 200b; Yowell, 2000)과 사회경제적 지위(McCabe 2000a, 2000b; Yowell, 2000)가 미래계획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Azaiza & Ben-Ari, 1997),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McCabe & Barnett, 2000b; Mirza & Somers, 2004)과 청소년의 미래지향에 관한 부모의 격려·지지 정도(McCabe 등 2000b)도 영향을 미쳤다.

Yowell(2000)의 청소년의 미래기대와 학업성적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성적은 미래 삶을 준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구체적이며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학업 성적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황미정(2009; 재인용)의 연구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직업과 진로 영역에서 더 높은 미래기대 수준을 보였고, 여자청소년이 직업과 진로 영역에서 남자청소년보다 덜 확장된 미래기대를 나타냈다. 이것은 보편화된 전통적인 성역할을 인지하여 자신의 미래에 투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청소년의 미래지향이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학자의 연구에서 보면 여자청소년이 학업 목표 달성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미래기대 수준을 보였으며, 가족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미래기대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인 경우 학업과 직업 달성 시 필요한 준비에 대하여 막연한 이해를 하지만, 고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은 구체적인 계획의 틀을 세웠다(유지선, 2007; 재인

용).

부모의 교육수준과 관련된 미래기대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Azaiza 등(1997)에 의하면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졸보다 학업계획이 더 분명한 결과를 나타냈다. 국내 진로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청소년 또한 학업에 대한 포부를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며, 고등학교 진학계획, 학생의 직업포부, 진로의식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설정에 역할모델링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이종범 외, 2005).

가족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미래기대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경우 제한된 수입으로 인해 양친가정보다 적절하게 부모의 감시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한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낮다(Amato & P.A. Booth, 1997). 국내연구에서도 한부모(특히 여성가장)의 자녀일 경우 대학진학을 선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박용권·박병금, 1999). 전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자녀의 진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한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청소년 또한 이를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자아존중감과 미래기대에 대한 선행연구

최미경(2004)은 자아존중감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 적응 및 건강한 인성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호주와 핀란드 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미래기대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미래기대의 여러 영역 중 학업 영역과 직업과 진로 영역,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사건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Seginer, 1988).

또한 유지선(2007)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기대는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Malmberg & Trempala(199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진학 등 학업성취의 기대에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긍

정적 자기평가는 미래과업의 가치와 성공적인 미래 기대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홍재양(2000)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가치가 있고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 삶에 대해 긍정적이며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나 문제를 추구한다. 따라서 자신이 세운 미래 목표가 실패할지라도 크게 낙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며 목표를 달성하려는 성취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선숙(2006)의 연구에서도 가족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미래기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 자유로운 표현, 약속 신뢰, 수용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로운 표현, 의사결정 참여는 청소년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지지와 미래기대에 대한 선행연구

김지혜(1998)는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능과 자아개념에 알맞은 꿈을 심어주는 친애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박진채·홍경자(2004)는 청소년이 직업 세계에 먼저 진출한 경험자의 일화를 듣거나 격려와 지지를 받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 직업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Poole & Cooney(1983 재인용)는 청소년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의미 있는 타인들의 격려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부모가 비지지적이라고 지각하는 경우, 지지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보다 미래에 대해 덜 낙관적이며 부모가 자신의 미래 사건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였다. 가족변인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미래기대를 다룬 연구(MaCabe 등 2000b)에서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사회생활 참여로 인한 자녀양육의 관여 부족으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광자(2004)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지'가 청소년들



이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발달을 이루게 하여 올바른 진로준비행동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으며 부모지지와 진로발달 변인간에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고, 남희경(1997)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빈곤 청소년들의 적응이 낮고 미래에 대한 의식이 불투명하다고 보고한다.

이미라(2001)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외부의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활동, 필요한 외부자원연결이 자아실현과 미래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교사의 지지체계나 영향력 있는 외부 지지자, 외부자원이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 및 학교 적응, 진로의식 수준을 높게 한다고 하였다.

강향옥(2002)은 교사와 친구관계가 긍정적인 미래상을 그리고 진로발달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하면서 특히 교사가 초기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친구관계는 전 단계에 걸쳐 유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 Ⅲ.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 1. 연구모델

이 연구는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 교사의 사회적 지지,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이 미래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이나 진로 상담 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추후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모델 1 :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

모델 2 : 청소년의 특징과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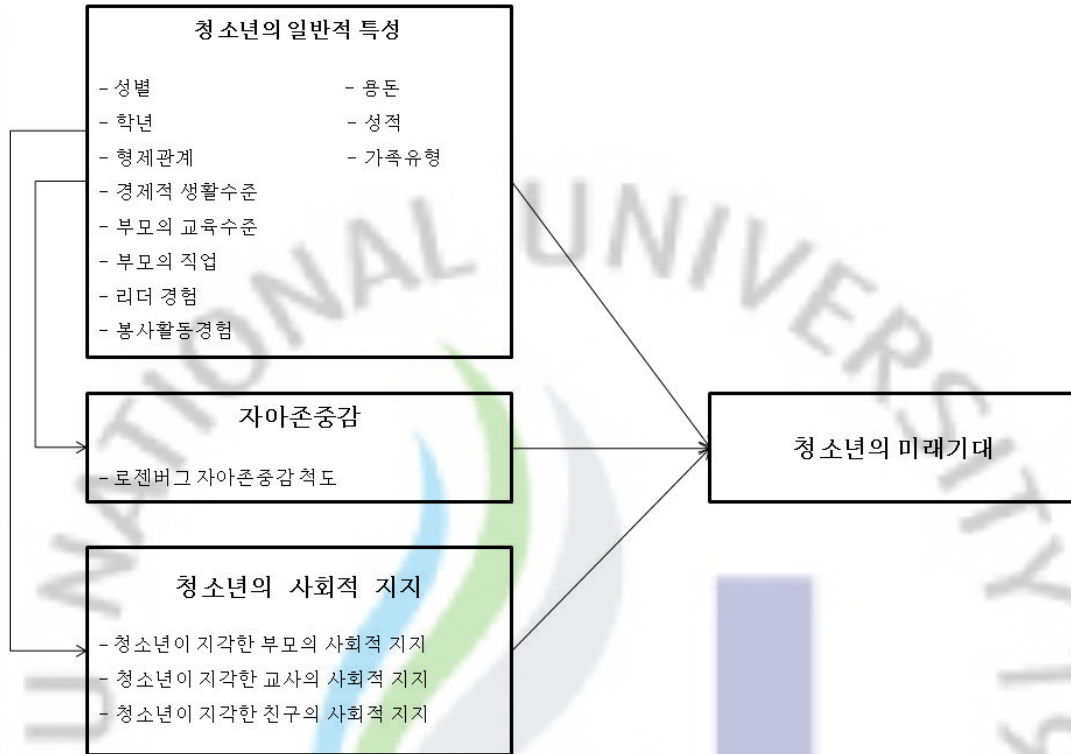
모델 2-1 : 청소년 일반적 특징과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

모델 2-2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

모델 2-3 :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

모델 3 :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척도의 구성

### 1) 종속변인

이 연구에서는 유지선(2007)의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알맞게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였다.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미래기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독립변인

### (1) 개인적 특성 변인

개인적 특성 변인에는 성별, 용돈, 학년, 학교성적, 형제관계,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경제적 생활수준,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수준, 교내·외에서의 리더 경험, 봉사활동 경험 등을 포함하였다. 학교성적은 지난 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학급에서의 성적을 의미한다. 월평균 용돈은 꼭 필요한 교통비를 제외한 실제 부모님께 받아서 사용하는 실제적인 용돈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봉사활동 경험은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교내봉사활동을 제외한 교외에서의 봉사활동에 한해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미래계획을 세우는 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 자신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조사하여 가족사항 및 형제관계를 고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 생활수준을 고려하였으며,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 표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생활수준은 청소년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 (2) 자아존중감 변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로젠버그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충희(1995)가 수정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알맞게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고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검사지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예비조사 후, 연구대상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고려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 (3) 사회적 지지 변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사회적 지지 변인에 대한 문항은 진은아(2007)의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이론에 근거하여 문항을 구성하여 5점 척도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3개 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입시에 부담을 느끼는 제주지역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설문지에 대한 부담 및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성실하게 응답하기 힘들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0년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중학교 1·2학년 40명, 고등학교 1·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2010년 4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직접 학교들을 방문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학교 총 4곳 400부, 고등학교 총 4곳 400부, 총 800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부실응답 등 적합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61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자아존중감, 미래기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통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미래기대에 차이를 가져오는 독립변수는 t-test와 ANOVA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2문항 이상으로 구성된 문

항들은 내용에 따라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고 Cronbach 값을 기초로 문항 일치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제변수들의 영향력은 위계적 회귀분석(Step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때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b>중속변인</b> 미래기대(5)*	자신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 정도
<b>개인관련 변인</b>	
성 별	1=남학생 0=여학생
학 년	중학생 1=해당 0=비해당 고등학생 1=해당 0=비해당
학교성적	지난 학기 학급에서의 성적
용돈	월평균 용돈(월)
교내 리더 경험	1=있음 0=없음
교외 리더 경험	1=있음 0=없음
봉사활동 경험	1=있음 0=없음
아버지 직업	1=관리·사무직 2=판매·서비스직 3=기타
아버지 교육수준	아버지 교육수준(년)
어머니 직업	1=있음 0=없음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년)
가족유형	1=양부모 가족 2=기타 가족
생활수준	자신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
형제수	1=독자 2=2명 3=3명 이상
형제순위	1=첫째 2=기타
<b>자아존중감관련 변인</b>	
자아존중감(9)*	자신이 느끼는 자아존중감의 정도
<b>사회적 지지관련 변인</b>	
부모의 지지(10)*	자신이 인식한 부모의 지지 정도
교사의 지지(10)*	자신이 인식한 교사의 지지 정도
친구의 지지(10)*	자신이 인식한 친구의 지지 정도
( )안의 숫자는 문항수임	
* : 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관련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50.3%, 여학생이 49.7%로 남학생이 약간 많았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 20.1%, 중학교 2학년 31.3%였고, 고등학교 1학년 27.0%, 고등학교 2학년 21.6%로 중학생이 약간 많았다. 학교 성적은 하위권 27.5%, 중위권 25.1%, 상위권 47.4%로 나타나 상위권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교통비를 제외한 조사대상자들이 받는 월평균 용돈은 약 2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교내 리더 경험이 있는 경우 73.1%, 없는 경우 26.9%로 학급이나 학교의 임원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초등학교 때 분기별로 학급과 학교의 임원을 선출하여 학생들이 리더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교외 리더 경험이 있는 경우 8.5%, 없는 경우 91.5%로 나타나 교외의 청소년 단체나 종교 단체 등의 임원을 경험한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70.0%, 없는 경우 30.0%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봉사활동이 의무이기도 하며 내신성적이나 대학 입시에 점수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 48.7%로 약 50%에 가까웠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직이 29.8%, 관리·사무직이 21.6%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44.5%, 대졸 이상이 55.5%로 대졸 이상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사무·판매·서비스직이 37.7%로 가장 많았고, 주부가 34.7% 전문·경영직 12.6%, 기타직 15.0%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58.8%, 대졸 이상이 41.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89.0%였고, 한부모 가족이나 부모 없이 조부모 및 친인척과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이 11.0%로 나타났다. 평균 가족 수는 4.47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형제 수(본인을 포함한)는 독자 4.3%, 2명 54.0%, 3명 이



상 41.7%로 나타났고, 평균 형제 수는 2.46명이었다. 형제간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는 42.8%, 기타인 경우는 57.2%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빈도, %, 평균, 표준편차, N=611)

범주형 변인		빈도	백분율(%)
<b>개인 관련 변인</b>			
성별	남	306	50.3
	여	302	49.7
학년	중학교 1학년	122	20.1
	중학교 2학년	190	31.3
	고등학교 1학년	164	27.0
	고등학교 2학년	131	21.6
학교 성적	상위20% 이상	152	25.5
	21-40%	131	21.9
	41-60%	150	25.1
	61-80%	97	16.2
	81% 이하	67	11.2
교내 리더 경험	있음	446	73.1
	없음	164	26.9
교외 리더 경험	있음	52	8.5
	없음	559	91.5
봉사활동 경험	있음	428	70.0
	없음	183	30.0
아버지 직업	관리·사무직	119	21.6
	판매·서비스직	268	48.7
	기타직	164	29.8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 이하	242	44.5
어머니 직업	대졸 이상	302	55.5
	전문·경영직	72	12.6
	사무·판매·서비스직	215	37.7
	전업주부	198	34.7
어머니 교육수준	기타직	86	15.0
	고졸 이하	327	58.8
	대졸 이상	229	41.2
가족유형	양부모가족	541	89.0
	기타 가족	67	11.0
생활수준	상	123	21.6
	중	342	60.0
	하	105	18.4
형제수	독자	26	4.3
	2명	327	54.0
	3명 이상	252	41.7
형제순위	첫째	259	42.8
	기타	346	57.2
<b>연속형 변인</b>		<b>평균</b>	<b>표준편차</b>
월평균 용돈(원)		27771.13	18843.37
가족수(명)		4.47	0.96
형제수(명)		2.46	0.74

\* : 결측값으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있음

## 2.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및 관련 변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실태와 관련한 특성은 <표 3>과 같고 Cronbach's  $\alpha$  값은 .840이다. 자아존중감은 전체적으로 3.35점으로 '보통이다' 수준이었으며, 이는 김지영(2008)의 연구 3.47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3.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3.68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3.59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존경한다' 2.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 자아존중감 실태(평균, 표준편차, N=611)

변인	평균	표준편차	$\alpha$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70	0.947	.840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41	0.962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3.68	1.021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3.28	1.02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56	0.976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2.35	0.906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3.43	1.111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16	1.058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3.59	0.930	
전체	3.35	0.660	

주) 5점 Likert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역점수 코딩

청소년의 특징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인식 차이

변인	구분	빈도	자아존중감	
			평균	D
성별	남	306	3.35	
	여	302	3.35	
T값			-0.074	
학년	중학생	312	3.34	
	고등학생	295	3.36	
T값			-0.415	
성적	상위권	283	3.53	B
	중위권	150	3.26	A
	하위권	164	3.13	A
F값			22.716***	
개인용돈	1만2천원 이하	123	3.35	
	1만3천-3만원	214	3.27	
	3만1천원 이상	145	3.40	
F값			1.744	
교내리더경험	있음	446	3.41	
	없음	164	3.18	
T값			3.884***	
교외리더경험	있음	52	3.58	
	없음	559	3.33	
T값			2.637**	
봉사활동경험	있음	428	3.36	
	없음	183	3.33	
T값			0.640	
아버지직업	관리·사무직	119	3.31	
	판매·서비스직	268	3.42	
	기타	164	3.30	
F값			2.111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이하	242	3.29	
	전문대졸이상	302	3.41	
T값			-1.920	
어머니직업	있음	369	3.36	
	없음	202	3.37	
T값			-0.188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이하	327	3.32	
	전문대졸이상	229	3.44	
T값			-1.992*	
가족유형	양부모가족	541	3.36	
	기타가족	67	3.29	
T값			0.875	
형제순위	첫째	259	3.37	
	기타	346	3.34	
T값			0.645	
생활수준	상	123	3.48	B
	중	342	3.35	AB
	하	105	3.22	A
F값			4.183*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은 학교성적이 상위권일 때, 교내·외 리더경험이 있을 때, 어머니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일 때, 생활수준이 상 집단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준거로 삼기에 좋은 기준이 되고는 한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성취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고 한다(강향옥, 200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간접적인 변인이기에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위해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높다고 한 최경숙의(2002) 연구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 3.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및 관련 변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인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에 관련한 특성은 <표 5>와 같다. 전반적으로 친구의 지지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지지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에 관련한 특성을 살펴보면 Cronbach's  $\alpha$  값은 0.844이다. 부모의 지지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3.90점으로 나타나 부모의 지지가 약간 있는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가 4.20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고와 조언을 해주신다'와 '전체적으로 볼 때 나를 지지해 주신다'가 4.04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에 따라 내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3.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교사의 지지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3.04점으로 나타나 교사의 지지가 '보통이다' 수준으로 청소년들이 교사의 지지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Cronbach's  $\alpha$  값은 0.810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고와 조언을 해 주

신다' 3.66점, '나를 이해해 주신다' 3.38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다' 3.3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을 같이 보내주신다'가 2.6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친구의 지지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4.01점으로 나타나 친구의 지지를 '그렇다'의 수준으로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으며 Cronbach's α 값은 .828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 4.24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간을 같이 보낸다' 4.17점, '내 감정을 터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와 '나를 이해해 준다'가 4.16점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 대부분이 4점인 '그렇다'의 수준으로 청소년인 조사대상자들이 특성상 친구의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사회적 지지 실태(평균, 표준편차, N=611)

변인	부모		교사		친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내 감정을 터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3.85	1.040	2.86	1.090	4.16	0.888
나를 이해해주신다	3.94	0.950	3.38	0.896	4.16	0.819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다	4.04	0.912	3.66	0.950	3.87	0.996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	4.20	0.859	3.13	0.948	4.04	0.849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다	3.99	0.975	3.36	0.973	4.07	0.839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의논할 수 있다	3.85	1.027	3.12	1.000	4.07	0.888
시간을 같이 보내주신다	3.73	1.072	2.67	0.974	4.17	0.833
필요에 따라 내 일을 대신해 주신다	3.47	1.129	2.38	0.892	3.55	0.981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	3.89	1.029	2.76	0.986	4.24	0.819
전체적으로 볼 때 나를 지지해 주신다	4.04	0.950	3.16	0.948	3.72	0.943
전체	3.90	.813	3.04	0.718	4.01	0.688
Cronbach's α	.844		.810		.828	

주) 5점 Likert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 친구 지지의 경우 : '-주신다' 어미 대신 '-준다'로 사용하였음

청소년의 특징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중 부모의 지지는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 가족유형, 자아존중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는 성별, 학년,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 봉사활동경험,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자아존중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는 성별이 여학생일 때, 학년이 고등학생일 때, 학교성적이 상위권일 때, 개인용돈이 3만 1천원 이상일 때, 교내·외 리더경험이 있을 때, 봉사활동경험이 있을 때, 자아존중감이 중이나 하 집단에 비해 상집단일 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복희(1992)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친구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 여겨 솔선하여 행동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교내·외 리더 경험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친구의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6>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인식 차이

변인	구분	빈도	부모의 지지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평균	D	평균	D	평균	D
성별	남	306	3.87		2.98		3.87	
	여	302	3.93		3.11		4.15	
T값			-1.005		-2.100*		-4.963***	
학년	중학생	312	3.88		2.95		3.88	
	고등학생	295	3.92		3.15		4.15	
T값			-0.628		-3.390***		-4.899***	
성적	상위권	283	4.07	B	3.19	B	4.10	B
	중위권	150	3.81	A	2.91	A	4.03	B
	하위권	164	3.69	A	2.91	A	3.87	A
F값			12.671***		11.448***		5.842**	
개인용돈	1만2천원 이하	123	3.89		3.03		3.88	A
	1만3천-3만원	214	3.88		2.99		3.98	A
	3만1천원 이상	145	3.91		3.05		4.13	B
F값			0.052		0.363		4.576*	
교내리더경험	있음	446	3.98		3.10		4.09	
	없음	164	3.68		2.88		3.78	
T값			3.978***		3.444***		4.543***	
교외리더경험	있음	52	3.99		3.14		4.36	
	없음	559	3.89		3.03		3.98	
T값			0.804		0.879		4.985***	
봉사활동경험	있음	428	3.93		3.11		4.07	
	없음	183	3.83		2.88		3.86	
T값			1.290		3.586***		3.479***	
아버지직업	관리·사무직	119	3.86		3.14		4.14	
	판매·서비스직	268	3.95		3.04		3.99	
	기타	164	3.92		2.95		3.96	
F값			0.448		2.484		2.724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이하	242	3.88		2.95		3.98	
	전문대졸이상	302	3.95		3.11		4.07	
T값			0.894		-2.524*		-1.587	
어머니직업	있음	369	3.92		3.06		4.01	
	없음	202	3.98		3.05		4.06	
T값			-0.819		0.243		-0.953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이하	327	3.91		2.98		4.03	
	전문대졸이상	229	3.98		3.16		4.04	
T값			-0.899		-3.024**		-0.221	
가족유형	양부모가족	541	3.94		3.04		4.03	
	기타가족	67	3.56		3.05		3.86	
T값			3.700***		-0.033		1.847	
생활수준	상	123	4.05		3.13		4.03	
	중	342	3.88		3.03		4.04	
	하	105	3.81		3.00		3.91	
F값			2.843		1.126		1.585	
자아존중감	상	131	4.26	C	3.23	C	4.28	C
	중	323	3.92	B	3.07	B	3.98	B
	하	147	3.53	A	2.81	A	3.81	A
F값			31.063***		12.495***		17.181***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 4. 조사대상자의 미래기대 및 관련 변인

조사대상자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 실태와 관련한 특성은 <표 7>와 같고 Cronbach's α값은 .865이다. 전체적으로는 4.02점으로 미래기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나는 미래에 원하는 삶을 살 것이다'가 4.14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순으로 '나는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4.06점이었다.

<표 7>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 실태(평균, 표준편차, N=611)

변인	평균	표준편차	α
나는 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3.82	0.916	.865
나는 미래에 원하는 삶을 살 것이다	4.14	0.806	
나는 미래에 어떤 의미이든 성공한 삶을 살 것이다	4.03	0.848	
나는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4.06	0.806	
나는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4.03	0.972	
전체	4.02	0.703	

주) 5점 Likert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청소년의 특징에 따라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은 개인 관련변인 중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 봉사활동경험,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성적이 상위권일 때, 교내리더 경험과 봉사활동 경험이 있을 때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을 높게 했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성적이 미래 삶을 준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한 Yowell(2000)의 연구 결과와 같이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미래 삶을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여 미래성공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 일 때, 생활수준이 상집단일 때 청소년들이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부모 스스로 자녀들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역할모델링으로 작용하고(이종범·정철영,

2005)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수준이 높기 때문(김숙희, 2000)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관련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변인인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상집단일 때 미래기대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중이나 하집단에 비해 상집단 일 때 미래기대를 높게 인식하였다.



<표 8>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 차이

변인	구분	빈도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	
			평균	D
성별	남	306	3.99	
	여	302	4.04	
T값				-0.813
학년	중학생	312	3.98	
	고등학생	295	4.05	
T값				-1.218
성적	상위권	283	4.15	C
	중위권	150	3.99	B
	하위권	164	3.84	A
F값				11.636***
개인용돈	1만2천원 이하	123	4.02	
	1만3천-3만원	216	3.93	
	3만1천원 이상	146	4.10	
F값				2.584
교내리더경험	있음	446	4.08	
	없음	164	3.83	
T값				3.978***
교외리더경험	있음	52	4.20	
	없음	559	4.00	
T값				1.933
봉사활동경험	있음	428	4.06	
	없음	183	3.90	
T값				2.613**
아버지직업	관리·사무직	119	4.04	
	판매·서비스직	268	4.06	
	기타	164	3.95	
F값				1.260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이하	242	3.95	
	전문대졸이상	302	4.08	
T값				-2.232*
어머니직업	있음	369	4.02	
	없음	202	4.02	
T값				0.014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이하	327	3.98	
	전문대졸이상	229	4.11	
T값				-2.072*
가족유형	양부모가족	541	4.03	
	기타가족	67	3.87	
T값				1.829
형제순위	첫째	259	4.07	
	기타	346	3.98	
T값				1.632
생활수준	상	123	4.22	B
	중	342	4.00	A
	하	105	3.86	A
F값				8.539***
자아존중감	상	132	4.57	C
	중	324	4.00	B
	하	147	3.56	A
F값				94.765***
부모지지	상	159	4.29	C
	중	271	4.03	B
	하	175	3.38	A
F값				35.600***
교사지지	상	129	4.31	C
	중	307	3.99	B
	하	166	3.74	A
F값				27.132***
친구지지	상	179	4.27	C
	중	264	4.06	B
	하	159	3.77	A
F값				23.405***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 5. 조사대상자의 미래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조사대상자의 개인관련 변인, 자아존중감관련 변인, 사회적 지지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때 선택된 독립변인들은 t-test와 ANOVA분석을 통해 유의한 것들을 포함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모형1에서는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교내리더 경험이 있을 때, 생활수준이 좋을수록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성적은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며 학교성적이 좋은 경우 교내에서 리더를 경험할 확률 또한 높다.

모형2는 생활수준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평가인 자아존중감은 성공적인 미래 기대를 형성하는데 직접적 연관이 있으며 긍정적인 자기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최미경, 2004).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미래 삶에 대해 긍정적이며 자신감이 높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나 문제를 추구한다고(홍재양, 2000)한 결과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성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박현선, 1998 재인용).

모형3에서는 생활수준,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지'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로준비행동으로 연결되고(이광자, 2004), 교사와 친구관계가 긍정적인 미래상과 진로발달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Burk 외, 1995)고 한 결과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계획

을 세우는데 있어 의미 있는 타인들의 격려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Trommsdorf, 1983 재인용)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9>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제변수들의 영향력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beta$	B	$\beta$	B	$\beta$
<b>개인관련 변인</b>						
학교성적	0.079**	0.149	0.017	0.032	0.004	0.009
교내리더경험 (없음)	0.197**	0.124	0.092	0.058	0.063	0.062
봉사활동경험 (없음)	0.067	0.044	0.106	0.070	0.080	0.053
아버지 교육수준	0.028	0.032	0.043	0.048	0.021	0.024
어머니 교육수준	0.021	0.024	-0.006	-0.007	0.003	0.004
생활수준	0.141**	0.130	0.095*	0.087	0.090*	0.084
<b>자아존중감관련 변인</b>						
자아존중감			0.546***	0.544	0.462***	0.464
<b>사회적 지지관련 변인</b>						
부모지지					0.114***	0.135
교사지지					0.078*	0.084
친구지지					0.094*	0.094
상수	4.198***		2.442***		1.675***	
F값	7.811***		37.879***		30.035***	
Adj-R <sup>2</sup>	.077		.348		.381	

\*p<.05 \*\*p<.01 \*\*\*p<.001



## V. 결론 및 제언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주위의 사회적 지지변인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전인적인 성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본 초석을 다져야 한다. 외국은 일찍부터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미래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는 몇몇 연구 정도만 이루어져 앞으로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할 단계라고 본다. 또한 현재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미래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미래기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미래계획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청소년 미래기대를 강조한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관련 변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체변수들의 영향력은 위계적 회귀분석(Step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에는 개인적 특징,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포함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제주도 지역의 중·고등학생 611명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전체적으로 3.35점으로 “보통이다”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3.70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나는 내 자신을 존경한다”가 2.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중 친구의 지지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의 친구 집단이 그 시기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해하면서 인간의 사회 및 성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지지는 전체적으로 3.90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가 4.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요에 따라 내 일을 대신해 주신다”가 3.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는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수준으로 청소년들이 교사의 지지를 높게 인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다”가 3.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요하면 시간을 같이 보내주신다”가 2.6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지지는 전체적으로 4.01점으로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가 4.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요에 따라 내일을 대신해 준다”가 3.5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미래기대는 전체적으로 4.02점으로 자신의 미래 성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미래에 원하는 삶을 살 것이다”가 4.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4.0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특징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은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 교외리더경험, 어머니 교육수준, 생활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특징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지지 경우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 가족유형,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이었으며, 교사의 지지는 성별, 학년,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 봉사활동경험,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자아존중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는 성별, 학년, 학교성적, 개인용돈, 교내리더경험, 교외리더경험, 봉사활동경험, 자아존중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과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미래 삶

을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여 미래성공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은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 봉사활동경험,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생활수준,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경우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부모 스스로 자녀들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역할모델링으로 작용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위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형1에서는 학교성적, 교내리더경험, 생활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성적은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며 학교성적이 좋은 경우 학교내에서 리더를 경험할 확률 또한 높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모형2에서는 생활수준과 자아존중감이 모형3에서는 생활수준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변인인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활수준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아존중감과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평가가 성공적인 미래 기대를 형성하는데 직접적 연관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미래 삶에 대해 긍정적이며 자신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미래기대는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이루어질수록 성인기 발달과업의 가치와 기대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추며 미래의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존의 자아존중감 관련 프로그램은 많으나 미래계획이나 진로계획과 관련한 내용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부모와 친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미래기대가 높다는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청소년들의 미래 삶에 대한 친구와 가족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의 특성상 친구관계를 증진시키고 서로 전인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보완이 있어야겠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가 미래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목표의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지지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가 미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부모의 역할 모델링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적 뒷받침이 시행되어야 하는 등 청소년의 미래기대 인식에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가정환경 풍토 조성을 국가나 제도적 차원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기대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미래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미래계획이나 진로지도는 담임교사의 의해서 실시되고 있으며 주로 학업성적과 적성 및 흥미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의 진정한 자기 미래 및 진로개발 찾아내는 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학교,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미래의 학업, 직업, 진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기호에 적합한 다양한 교과내용 편성을 가정과 교과를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를 시작으로 확대·강화시켜야 한다. 부모와 교사들 또한 청소년기의 특성과 청소년기 긍정적인 미래인식의 중요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해 미래의식 및 진로에 대해 지도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미래기대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직업체험활동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으로 예산 확보와 양·질의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위한 미래 직업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미래기대가 궁극적으로 자기 삶에 목표의식을 갖고 전인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아울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개선의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을 갖고 있어 이를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시에 소재하는 남자 중학교 2곳과 여자 중학교 2곳, 남자 고등학교 2곳과 여자 고등학교 2곳을 표집하여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대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의 미래기대 측정 도구는 이론적인 배경과 함께 국외 연구에서 발췌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지만, 문화적 차이가 있다. 이에 앞으로의 국내 실정에 맞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다루지지 않은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연구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각한 미래기대를 측정한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그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실제와 달리 자칫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체제들과 청소년을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지각 정도를 알아보고, 청소년의 성공적인 미래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적인 미래 성인기 발달과업을 위한 청소년 및 부모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청소년의 미래기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미래 발달 과업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 참고문헌

- 강영미(2000), 빈곤가정 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의 효과성 연구 : 자아존중감·미래계획·학교생활태도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향욱(2002), 해결중심의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대인관계 개선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본용·김택호·김인규(2003), 청소년의 또래관계, 한국청소년상담원,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란(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숙(1995),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봉환(2001), 청소년 진로상담 정책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상담연구, 8(1), 146-169.
- 김숙희(2000), 가출청소년의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옥숙(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현(2005),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13집, 87-104.
- 김은주(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자성(2001),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혜(1998),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 스트레스, 교사·친구 지지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춘례(1992), 자아존중감에 따른 통제소재와 학업성취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충희(1995), 해외귀국 청소년의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혜경(1999),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정홍(2001),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희경(1997), 학교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정서 부적응과의 관계 : 서울시 거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 선(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자아상태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경숙(2007), 2007 청소년백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박영신·김의철·민병기(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 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애·최영희·박인진·김향은(200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2(3), 275-286.
- 박용원·박병금(1999), 모자가족의 가족체계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지, 8(1), 9-34.
- 박진채·홍경자(2004),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1), 7-38.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애현(1998),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선숙(2006), 가족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미래계획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의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돈규(2001),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수현(2010),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지선(2007),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심리사회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광자(2004), 부모 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 : 일반계, 산업정보계, 실업계 비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라(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재(2008),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학업성취도가 미래기대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범·정철영(2005), 초등학생 진로발달 요인구조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8(3), 1-13.
- 이진용(1990),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화(1994),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가지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 지각,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춘재(1988), 청년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혜숙(199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구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태인(199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범 정철영 김봉환(2005), 중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포부 및 진로의식간의 관계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4(3), 785-813.
- 장해영(2004),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영숙·신민섭·설인자 역(2001), 청소년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조아미·방희정(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지, 10(1), 249-275.
- 조유영(2010), 청소년기 미래의 꿈을 시각화하는 표현 지도 방안 연구 :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순지(1993), 지능에 대한 개념 및 자아능력지각과 학업 성취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 이동훈, 신호정, 이창호, 박관성, 송은미, 백윤미(2007), 위기청소년 반사회적 행동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연구 II, 청소년상담연구 총서. 36-39, 62-70.

- 진은아(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미경(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37-251.
- 최경숙(2002), 실업계 고교 학생의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형성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희영(200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탁은정(2010), 긍정적 사고 수준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 적응과 또래관계의 차이, 전남대학교 상담심리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상철(1998), 고교평준화정책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수연(2006), 부모기대 및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성훈·도현심(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2), 145-157.
- 홍재양(2000), 봉사체험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미정(2009), 빈곤청소년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 진로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mato, P., & A. Booth.(1997), Generation at Risk: Growing Up in an Era of Family Upheava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zaiza & Ben-Ari(1997), Minority Adolescents' Future Orientation: The Case Of Arabs Living In Israel,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Tensions, Vol.27(1), 214-224.*
- Bachman, J. G., & O'Malley, P. M.(1977), Self-esteem in youngman : A longitudinal analysis for the compact of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65-380.*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opersmith, S.(1967), The practical theorist: the life and work of Kurt Lewon, *New York: Basic Books.*
- Demaray, M. K., & Malecki, C. K. (2002), Critical level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ssociated with student adjustment,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7, 213-241.*
- Dyk, P, H.(1990), Family relations factors that facilitate or inhibit middle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tar state University.*
- Kalplan, H. B.(1975), The self-esteem motive and change in self-attitud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1, 265-275.*
- Malmburg & Trempala(1997), Anticipated Transition to Adulthood: The Effect of Educational Track, Gender and Self-Evaluation on Finish and Polish Adolescent's Future Orient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6(5), 517-537.*
- McCabe & Barnett(2000a), First Comes Work, Then Comes Marriage: Future Orientation Among African American Young Adolescents, *Family Relations, Vol. 49(1). 421-482*
- McCabe & Barnett(2000b), The Relation Between Familial Factors and the Future Orientation of Urban, African American Sixth Grad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 9(4), 491-508.*
- Mirza & Somers(2004), Future Orientation Among Caucasian and Arab-American.
- McCabe & Barnett(2000a), First Comes Work, Then Comes Marriage: Future Orientation Among African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25(3).*
- Mussen, P. H., Conger, J. I., Kagan, J., & Huston, A. C.,(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6th Ed.), *New york: Harper & Row.*
- Poole & Cooney(1987), Orientations to the Future: A Comparison of Adolescents in Australia and Singapor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2), 121-142.*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Basic book, New york.
- Seginer(1988), Adolescent's Orientation Toward the Future: Sex Role Differentiation in a Sociocultural Context, *Sex Role, Vol. 18(11/12)*, 739-757.
- Seginer & Schlesinger(1998), Adolescent's Future Orientation in Time and Place: The Case of the Israeli Kibbutz,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2(1)*, 151-167.
- Seginer, Vermulst, & Shoyer(2004), The indirect link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nd adolescent future orientation: A multiple-step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8(4)*, 365-378.
- Simmons, R., Rosenberg, F & Rosenberg, M.(1973), Disturbance in the self-image at adolesc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553-568.
- Trommsdorff, lamm, & Schmidt(1979),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Future Orientation(Time Perspectiv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8(2)*, 131-147.
- Yowell(2000), Possible Selves and Future Orientation: Exploring Hopes and Fears of Latino Boys and Girl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20(3)*, 245-280.



<Abstract>

Research about Adolescent's Expectation of Future :  
Focused 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Kim, Jin-gyung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Hye-yeon, Ph. D.

As a basic study on adolescents' expectancy for future,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self-esteem, social sup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peers, and expectancy for future and further connections among them. It also aimed at identifying variables to have the biggest influence on them, providing basic data to be used for follow-up studies and their future planning, and suggesting directions in career education to emphasize their expectancy for future at home and in teaching materials.

For those purposes, 800 adolescents attending middle or high schools in Jeju were surveyed with Expectancy for Future Inventory, Self-Esteem Inventory, and Social Support Inventory. After excluding the questionnaires whose responses were not sincere or missing, total 611 were used in analysis and put to the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to affect their expectancy for future .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ts generally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future, which implies that today's adolescents have an expectation that they will grow into full individuals with positive dreams and goals for futur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s of self-esteem according to school grade, leadership experience in school, leadership experience outside the school,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mother, and level of living;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s of parent support according to school grade, leadership experience in school, type of family, and self-esteem;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s of teacher support according to gender, grade, school grade, leadership experience in school, experience with voluntary activities,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father,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mother, and self-esteem;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s of peer support according to gender, grade, school grade, allowance, leadership experience in school, leadership experience outside the school, experience with voluntary activities, and self-esteem. That is, school grade, leadership experience in school, and self-esteem turned out to be important variables in their perceiving social support. The higher school grades they received, the more they tended to set clear goals for future life, make preparations for them, and increase their expectations for futur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s of

expectancy for future according to school grade, leadership experience in school, experience with voluntary activities,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father,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mother, level of living, self-esteem, parent support, teacher support, and peer support. The parents with a high educational background tended to have a professional job, have high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 serve as the role models of their children regarding career or future, and have a high level of positive perceptions of the future.

Finally, the variables to affect the adolescents' perceptions of expectancy for future were examined hierarchically. As a result, there were school grade, leadership experience in school and level of living in Model 1. School grades can be one of the criteria to prepare for future life. Those students who receive a good grade tend to have leadership experiences in school. The level of living and self-esteem turned out to affect their perceptions for expectancy for future in Model 2 and level of living,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parent, teacher, and peer support) in Model 3. In general, level of living,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we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with self-esteem and parent support having the greatest impact on their perceptions of expectancy for future. The result is connected to the fact that those who have positive evaluations of themselves tend to have expectancy for future. The adolescents who have high self-esteem regard themselves as important figures, are positive about future life, and have strong self-confidence.

Those research findings identified the factors to affect adolescents' expectancy for future and indicate that their self-esteem and the

social support they receive should be reinforced to help them have greater expectancy for future . They also imply that diverse subject contents should be organized, extended, and reinforced around Home Economics that meet their taste to help them set positive plans and make preparations for future life,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and distribute programs to develop diverse job experience activities and expectancy for future and programs targeting the subjects of the social support system, and that the concerned policies and systems should be improved in the national and social aspect.



<부록>

## 설문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검사지는 바람직한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맞거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오로지 연구목적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김진경(010-9840-3380)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김혜연

※ 다음은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란에 √표를 해 주세요.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학년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고등학교 1학년    ④ 고등학교 2학년
3. 반에서의 성적(지난 학기 중간·기말고사 평균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① 하위 81%이상(40명 기준으로 반에서 32등 이하)  
 ② 61~80%(40명 기준으로 반에서 24~32등)  
 ③ 41~60%(40명 기준으로 반에서 17~24등)  
 ④ 21~40%(40명 기준으로 반에서 9~16등)  
 ⑤ 상위 20%이상(40명 기준으로 반에서 1~8등)
4. 한달에 받는 평균 용돈 액수(교통비 제외)  
 약 (            )원

※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 주세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나를 이해해 주신다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의논할 수 있다					
필요하면 시간을 같이 보내 주신다					
필요에 따라 내 일을 대신해 주신다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나를 지지해 주신다					

2. 여러분의 친구들에 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 주세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 감정을 터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나를 이해해 준다					
충고와 조언을 해 준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준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와 격려를 해 준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의논할 수 있다					
필요하면 시간을 같이 보내 준다					
필요에 따라 내 일을 대신해 준다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나를 지지해 준다					

3.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 내·외 활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활동을 골라 √표하거나 숫자를 적어 주세요

1) 학교에서 맡은 직책

- |   |
|---|
| ① 학교 임원(학생회장, 부회장, 어린이 회장, 어린이 부회장, 학교 간부 및 부장)<br>② 학급 임원(반장, 부반장, 실장, 부실장, 학급간부 및 부장)<br>③ 동아리 임원(동아리 회장, 동아리 부회장, 동아리 총무 및 부장) |
|---|

	경험유무(√표 해주세요)	해당번호	횟수
초등학교	있다( ) 없다( )		
중학교	있다( ) 없다( )		
고등학교	있다( ) 없다( )		

2) 학교 밖에서 맡은 직책

- |  |
|--|
| ① 종교단체 임원(교회 및 성당 등 모임 회장)<br>② 학교 밖 청소년단체 및 문화의 집 동아리 임원<br>(동아리 회장, 동아리 부회장, 동아리 총무 및 부장)<br>③ 기타(기타 소속되어 있는 곳의 회장 및 임원) |
|--|

	경험유무(√표 해주세요)	해당번호	횟수
초등학교	있다( ) 없다( )		
중학교	있다( ) 없다( )		
고등학교	있다( ) 없다( )		

3) 봉사활동 경험(교내봉사활동 제외)

- |  |
|--|
| ① 특기봉사(위문공연봉사)    ② 관공서 봉사(동사무소, 우체국, 도서관 청소 및 문서정리)<br>③ 봉사캠프(기아체험 등)    ④ 시설봉사(양로원, 보육원, 장애인 시설 위문 및 청소 등)<br>⑤ 헌혈    ⑥ 성금기탁    ⑦ 교통지도, 축제안내 등    ⑧ 기타 |
|--|

	경험유무(√표 해주세요)	해당번호	횟수
초등학교	있다( ) 없다( )		
중학교	있다( ) 없다( )		
고등학교	있다( ) 없다( )		

※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표를 해 주세요.

1. 형제관계를 적어주세요.

( )남 ( )여 중 ( )째

2.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 해 주세요.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여동생( ) ④ 남동생( ) ⑤ 언니·누나( )  
 ⑥ 오빠·형( ) ⑦ 할아버지·외할아버지( ) ⑧ 할머니·외할머니( )  
 ⑨ 이모( ) ⑩ 고모( ) ⑪ 삼촌( ) ⑫ 그 외(적어주세요 : )

3. 우리집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어디입니까?

-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4. 부모님의 교육수준(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는 표시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① 무학 또는 초졸		① 무학 또는 초졸	
② 중졸		② 중졸	
③ 고졸		③ 고졸	
④ 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⑤ 대학원졸	

5. 부모님의 직업(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는 표시하지 말아주세요)

① 전문·기술직 : 대학교수, 교사, 판사, 의사, 기자, 언론인, 방송인, 회사나 관청의 연구원 등
② 경영·관리직 : 종업원 10인 이상의 기업이나 가게의 경영자, 회사나 관청의 과장 이상인 사람
③ 사무직 : 회사나 관청의 과장 이하 사무원, 은행원, 경찰, 기타 사무관련직 종사자
④ 상공자영업 : 종업원 9명 이하의 기업이나 가게의 경영자, 개인택시 운영
⑤ 자유업 : 작가, 종교가, 사회운동가,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점술가
⑥ 판매·서비스직 :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또는 가게의 점원, 외판원, 수금원, 배달원 등
⑦ 기능직 : 운전기사, 기능공, 전화교환수, 이·미용사, 조리사
⑧ 파출부, 일일 노동자, 일반직공, 식당종업원, 환경미화원, 건물관리인, 잡역부 등
⑨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⑩ 전업주부
⑪ 학생
⑫ 은퇴 및 무직

1) 아버지 ( ) 2) 어머니 ( )

6. 어떤 분이라도 좋습니다. 가족 중 부모님이나 부모님역할을 하는 다른 가족(형제자매 제외)을 대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 주세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 감정을 터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나를 이해해주시다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의논할 수 있다					
시간을 같이 보내주신다					
필요에 따라 내 일을 대신해 주신다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나를 지지해 주신다					

7.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해 주세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다음은 여러분의 미래계획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V표를 해 주세요.

1. 미래의 희망 학력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졸업	대학원 박사졸업	외국대학 석사 졸업	외국대학 박사 졸업

2.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나는 미래에 원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미래에 어떤 의미이든 성공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